2017. 7. 12(수) ~ 7. 20(목)

서유럽 3개국[이태리,스위스,프랑스]

- 2017 안성시의회 -

국 외 연 수 보 고 서



안 성 시 의 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1

○ 개요 및 일정 ····· 1

○ 목 적 ····· 4

Ⅱ. 방문도시 현황 ····· 4

○ 방문지 현황 ····· 4

Ⅲ. 연수내용 ····· 9

○ 이탈리아 ····· 9

○ 스 위 스 ····· 13

○ 프 랑 스 ····· 13

Ⅳ. 연수결과 ····· 15

○ 세계문화 유산의 전시장 ····· 15

○ 실생활속의 문화유산 ····· 17

Ⅴ. 연수후기 ····· 18

안성시의회 선진지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 시찰을 위한

안성시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

○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우수시책과 주요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안목과 식견을 넓히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과 더불어 안성시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서유럽 3개국에 대한 국외연수 결과보고 임.

Ⅰ 연수개요

1. 개요 및 일정

○ 연수기간 : 2017.07.12(수)-07.20(목) 7박 9일

○ 대상국가 :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서유럽 3개국)

○ 참석대상

- 안성시의회 의원 6명
  (권혁진,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이기영, 조성숙)
-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오세옥, 김종각, 윤미자, 김세진, 박진홍, 이화동)
-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1명(감사법무팀 이춘란)

○ 주요 방문지

- 이탈리아
  - 콜로세움 경기장, 폼페이 유적지, 바티칸 시국,
  -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 스위스
  - 라우터브루넨
- 프랑스
  - 베르사이유 궁전, 에펠탑

○ 세부일정

일정	지역	일 정 표	비고
제1일 7/12 (수)	인 천 로 마	▶ 인천 국제 공항 출발 [AY042-10:20出] ▶ 헬싱키 도착 후 환승 [AY042-13:55出] ▶ 핼싱키 국제공항 출발 [AY783-16:20出] ▶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 도착 [AY783-16:45出] ▶ 숙소	
제2일 7/13 (목)	로 마 폼페이 소렌토 나폴리 소렌토	▶ '베수비우스화산폭발 도시' 폼페이로 이동 ▶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 가스텔누오보 성 견학 ▶ 나폴리에서 로마로 이동 ▶ 숙소	
제3일 7/14 (금)	로 마	▶ 호텔 조식 후 '세계 최소의 독립국' 바티칸시국 방문 - **바티칸 박물관 견학** -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로 유명한 **시스티나 예배당** - 카톨릭교의 본산지 **성 베드로 성당 견학** ▶ '역사의 도시' 로마 시내 유적 견학 - **콜로세움(외관), 포로 로마노(외관),** ▶ 숙소	
제4일 7/15 (토)	로마 피렌체 베니스	▶ '르네상스의 발원지이며 이태리에서 가장 분위기 있고 생동감 넘치는' 피렌체 견학 - 피렌체 **두오모 성당** -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이 되었던 **시뇨리아 광장** ▶ 피렌체에서 수상도시 베니스로 이동 ▶ 숙소	

일정	장소	일 정 표	비고
제5일 7/16 (일)	밀라노	▶ 베니스 시찰 -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 이라고 격찬한 곳인 산마르코 광장 - 베니스의 상징인 **산마르코 성당 관광** - **두칼레 궁전** - 카사노바가 감금되었던 감옥을 연결하는 다리로 죄수들의 한탄에서 비롯된 탄식의 다리 ▶ 패션과 문화의 도시 밀라노로 이동 - 두오모 성당(외관), 스킬라 극장(외관) ▶ 숙소	
제6일 7/17 (월)	라우터 브루넨 인터라켄 제네바 파리	▶ 스위스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라우터브루넨으로 이동** -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탑승하여 등정, 무공해 청정마을 뮈렌 시찰 ▶ T.G.V 탑승 [19:41] 제네바 풀발 - 파리 향발 [21:41] 파리 도착 하여 호텔 이동 ▶ 숙소	
제7일 7/18 (화)	파리	▶ 베르사이유로 이동 - 루이 14세의 절대권력의 상징인 베르사이유 궁전 시찰 ▶ '예술의 낭만의 도시' 파리 시내 견학 -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 "단결-화합"을 뜻하는 콩코드 광장 - 파리의 대표적 상징물인 개선문 ▶ 숙소	
제8일 7/19 (화)	파리 헬싱키 인천	▶ 호텔 조식 후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출발 ▶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출발 [AY880-12:20出] ▶ 헬싱키 도착 후 환승 [AY0880-16:15出] ▶ 핼싱키 국제공항 출발 [AY041-17:30出]	
제9일 7/20 (수)	인천 AY041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AY041-08:20]	

2. 연수목적

○ 국외 다양한 도시의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현황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선진화 방안 모색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집결지인 서유럽 연수국가의 유적지 및 관광자원의 문화탕방을 통한 관광 자원 개발 및 편의시설 실태 파악

○ 비교시찰을 통하여 우수사례 및 환경 문제점 등 파악하여 우리시 접목

Ⅱ 방문지 현황

◈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 공식어는 이탈리아어다. 국민은 이탈리아계이며 주로 로마 카톨릭교를 믿는다. 화폐 단위는 유로다. 양원제를 가진 공화국이다.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과 이웃하고 있는 지중해의 장화 모양의 반도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 예술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현재는 크게 발달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공식 이름은 이탈리아 공화국(Repubblica Italiana/Italian Republic). 영어로는 Italy라고 표기한다.

지중해를 향해 뻗어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와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 그밖에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과 이웃하고 있다.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발칸 반도와,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북아프리카와 마주보고 있다. 수도는 로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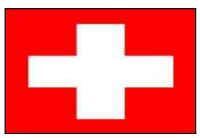
국민은 이탈리아계가 대부분이다. 공식 언어는 이탈리아어이다.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화폐 단위는 유로(€)이다.

75% 이상의 국토가 산악지대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알프스 산맥이 이탈리아의 북부 국경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아펜니노 산맥이 이탈리아 반도를 남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 평지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의 주요 강인 포 강 유역에 위치한다. 강력한 지질 활동으로 만들어진 3개의 지괴가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 섬을 덮고 있다. 한편 베수비오 산과 에트나 산은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4개의 활화산 가운데 일부이다.

이탈리아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해왔다. BC 9세기에 에트루리아 문명이 꽃피었으나, 로마인들을 BC 3~4세기에 그들을 몰아내고 로마 공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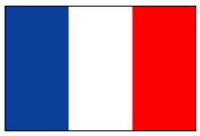
을 세웠다. AD 4~5세기에는 이민족이 침략하여 서로마 제국을 붕괴시켰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분열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유럽 문화에 대한 영향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고,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럽 예술 발전의 전진기지로 자리하였다.
15~18세기 이탈리아 영토는 프랑스, 신성로마제국, 스페인, 오스트리아에 의한 지배를 받았다. 나폴레옹의 점령이 1815년으로 종말을 맞았을 때, 이탈리아는 또 다시 여러 군소 독립 국가들로 분열되었다.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 : 이탈리아 통합운동)는 이탈리아 대부분의 영토를 통합하는데 성공했다. 1861년까지 시칠리와 사르데냐를 통합하였고, 1870년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이 완성되었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연합국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사회적 불안은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을 낳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 되었다. 1943년 이탈리아는 연합군에 패배하였고, 1946년에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와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EU)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1970년대 이탈리아는 제한적 자치권을 갖기는 하지만, 입법기능과 과세권을 갖는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련의 정치적 격변들을 겪었지만, 사회적 안정을 유지했다.

◈ 스위스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공식명칭은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이고, 수도는 베른이다. 양원제를 채택한 연방정부로서, 국가와 정부의 수장은 연방의회의 의장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다. 국토의 1/4이 알프스 산맥이며 수력 이외의 천연자원은 거의 없다. 스위스의 경제는 공업과 국제무역과 은행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산업으로는 시계・정밀기계・기계・화학 산업 등이 발달했다. 제1, 2차 세계대전부터 중립을 고수해왔으며 유럽연합(EU) 가입을 거부했다.
수도는 베른이다. 북위 45° 49’～47° 49’과 동경 5° 57’～10° 30’에 있다. 남북길이는 약 225km이며, 동서 최대폭은 약 336km이다. 서쪽으로 프랑스,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오스트리아와 리히텐슈타인 공국, 남쪽으로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의 1/4이 높은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력 이외의 다른 천연자원은 거의 없다. 여러 종족・종교・언어를 극복하여 관습의 통일을 이루었고 약 7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다.

인종은 주로 독일인・프랑스인・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망슈어이나, 로망슈어는 일부 지역에서만 쓰인다. 주요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이다. 화폐단위는 스위스프랑(CHF)이다. 스위스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쥐라 산맥은 스위스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원지대이다. 미텔란트는 도시화된 부유한 농업지역이다. 알프스 산맥은 높이 솟은 바위산, 깊은 골짜기, 거대한 빙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주요금융 중심부 중 하나인 스위스의 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뿐 아니라 국제무역과 은행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산업으로는 시계・정밀기계・기계・화학 산업 등이 발달했다. 관광업과 농업 또한 중요산업에 포함된다. 주요농산물로는 곡류・사탕무・과일・야채・유제품・초콜릿・포도주 등이 있다. 다양한 인종 집단, 종교, 언어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약 7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연방정부로서, 국가와 정부의 수장은 연방의회의 의장이다.
원래 이곳에 살던 거주민들은 헬베티아인이었는데, 기원전 1세기에 로마가 이들을 정복했다. 게르만족들이 3~6세기에 이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10세기에 이슬람교도와 마자르족 침략자들이 이 지역에 쳐들어왔다. 스위스는 9세기에 프랑크족의 지배를 받았고, 11세기에는 신성로마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1291년 우리・슈비츠・니트발덴 주가 반합스부르그 연맹을 맺어 스위스 연방의 기초가 되었다. 스위스는 종교개혁의 중심지역으로, 그로 인해 연방이 분열되어 정치적・종교적 갈등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1798년 프랑스는 스위스에 헬베티아 공화국을 수립했다. 1815년 빈 회의에서는 스위스의 독립을 인정하고 중립성을 보장했다. 1848년 베른을 수도로 하는 새로운 연방국가가 구성되었다. 스위스는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 중립을 유지했으며, 이후로도 중립성을 계속 고수해왔다. 1960년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가입했으나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것은 거부했다. 2002년 국제연합(UN)에 가입했다.

◈ 프랑스


수도는 파리이고 국민은 프랑스계이며 종교는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압도적이다. 화폐단위는 유로를 사용한다. 국가수반은 대통령이고, 정부수반은 수상이다. 문화적, 정치적으로 세계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통해 구체제를 무너뜨렸다. 혁명 후 나폴레옹 통치, 1, 2차 세계대전까지 다양한 정치적 변화를 겪었으며 1944년에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 육지의 반 이상이 농업에 적당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간직한 넓은 삼림지역이 영토의

1/4가량을 덮고 있다.
북동쪽으로 룩셈부르크·벨기에, 북서쪽으로 영국 해협, 서쪽으로 대서양과 비스케이 만, 남쪽으로 스페인·안도라·지중해, 동쪽으로 이탈리아·스위스·독일과 맞닿아 있고,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이 포함된다. 수도는 파리이다.
국민은 주로 프랑스계이다. 공식언어는 프랑스어이고, 종교는 그리스도교인에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압도적이며 개신교·이슬람교·유대교도 있다. 화폐단위는 유로(€)를 사용한다. 육지의 반 이상이 농업에 적당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간직한 넓은 삼림지역이 영토의 1/4가량을 덮고 있다.
프랑스는 소규모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된 혼합 경제이다. 국가수반은 대통령이고, 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다.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이고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EU)의 창립회원국이었다.
문화적으로, 프랑스는 중세 초기부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프랑스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정착생활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준다. BC 5세기까지 갈리아인이 라인 강 유역에서 지금의 프랑스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 왔다. BC 600년경에는 이오니아계 그리스인이 마르세유에 있는 정착지를 포함하여 여러 식민지를 건설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BC 50년에 갈리아에 대한 로마의 정복을 완성했다.
AD 6세기 동안에 프랑크계 잘리어족이 통치하였다. 8세기에 이르러 권력은 카롤링거 왕조로 넘어갔는데, 이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은 샤를마뉴였다. 100년 전쟁(1337-1453)으로 인해 프랑스는 영국이 지배해왔던 프랑스 영토를 되찾았다.
15세기말 무렵에 이르러 프랑스 영토는 오늘날과 거의 같게 되었다. 16세기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교도 사이에 벌어진 종교전쟁으로 얼룩졌다. 앙리4세는 낭트 칙령(1598)을 공표하여 상당한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다. 그러나 절대 왕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루이 14세가 1685년에 이것을 폐지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발표했으며,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무너뜨렸다. 나폴레옹(1799~1814/15)의 통치 아래에서 프랑스는 프랑스령을 확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제2공화정(1848~52)이 설립될 때까지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갔다. 제2공화정 이후 1871년에 제3공화정이 설립되기 전까지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지배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18)은 프랑스 북부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찌 독일에 의해 점령된 이후로 친독일주의자 비시 정권이 통치하였다. 1944년에 연합국과 자유 프랑스군에 의해 해방을 맞은 프랑스는 제4공화정 하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 제4공화국은 1950년대 인도

차이나에서의 값비싼 전쟁과 프랑스 식민지들에서 대두된 민족주의 운동을 감당할 수 없었다. 샤를 드 골을 대통령으로 1959년 1월에 제5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는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들 대부분을 독립시켰다.
1981년에 프랑스는 사회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86년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프랑스는 여러 차례 각각 다른 정당의 대통령과 총리로 이루어진 '동거정부'라고 알려진 권력이 분리된 정부 형태의 균형을 유지했다.

Ⅲ 연수내용

1. 콜로세움 경기장

콜로세오는 AD 72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착공해서 그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80년에 완성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다. 포로 로마노의 티투스 개선문에서 볼 수 있듯이 티투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0만 명의 노예를 데리고 와 그들을 이 콜로세오를 만드는 데 투입했다. 이 원형 경기장의 원래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인데 현재 이름인 '콜로세오'는 '거대하다'라는 뜻의 콜로살레(Colossale)에서 왔다. 과거 콜로세오 옆에는 네로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동상은 거대한 동상이라는 뜻의 '콜롯쏘'라고 불렀고, 이 명칭은 후에 콜로세오의 어원이 되었다. 동상은 네로 황제 사망 후 바로 없어졌다.
현재 콜로세오는 원형의 틀만 유지하고 있을 뿐 많은 대리석의 잔해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15세기부터 약 3세기 동안 로마의 집권자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건물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이곳 콜로세오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콜로세오는 둘레가 527m, 높이가 57m이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하고 있다.

❑ **콜로세움 경기장**



2. 폼페이 유적

폼페이는 BC 6세기경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BC 80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이 지역은 폼페이뿐만 아니라 에르클라네움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폼페이 지역의 인구는 약 3만 명에 육박했다. 화산 폭발의 징조는 이미 62년에 일어났고 인근 도시인 에르클라네움은 이미 폐허가 되었지만 당시 폼페이는 건재하였다.

폼페이는 로마 지도자들이 휴양지나 별장 등을 많이 지었던 곳이다. 사시사철 해가 뜨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화산의 지반열이 있어 그다지 춥지가 않았다.

폼페이는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 1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7m 이상의 화산재에 파묻혀 사망하였다. 전설로 내려오던 폼페이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1748년도에 이루어졌고 현재 발굴 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만 곳곳은 아직 작업 중에 있다.

폼페이에서는 광장, 공중목욕탕,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집들, 대성당(법정), 원형 극장, 베티의 의사당, 작은 매음굴 그리고 도시의 대로를 볼 수 있다. 500m 아래에는 전형적인 로마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는 에르클라네움(Herculaneum)이 있다.

❑ 폼페이 유적지



3.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 로마의 티베레 강 서안에 있으며, 산피에트로 광장이 있는 남동쪽을 제외하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티칸시티는 독자적인 통신체계, 은행, 화폐, 우체국, 라디오 방송국, 스위스인 수비대 등을 갖추고 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으로부터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 통치권은 교황에게 있고, 교황은 행정·입법·사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와 보르지아관에 있는 핀투리키오의 프레스코, 라파엘의 방 등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바티칸시국은 교황이 거주하는 바티칸궁전을 중심으로, 산피에트로 광장이 있는 남동쪽을 제외하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세워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6개의 입구 중에서 광장, 대성당 정면의 종탑 아치, 북쪽 성벽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입구 등 3개의 입구만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성벽들 안이 바티칸시국이라는 작은 나라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물은 4세기에 지어 16세기에 개축한 성베드로 대성당이다

바티칸 언덕 지역은 고대 로마인들이 신성시하던 지역이었으나 기원후 40년경 칼리굴라 황제가 이 지역에 원형경기장을 착공하면서 용도가 바뀌었다. 이 원형경기장은 네로 황제 때에 이르러 완공되었는데, 로마대화재의 범인으로 지목받은 기독교인들이 이 경기장에서 순교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이 원형경기장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져 이 지역에 묻혔다고 전해지는데, 그 묘지 위에 세워진 성당이 옛 베드로 대성당이었다. 4세기 이후 1870년까지 로마가톨릭의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바티칸은 로마 주변의 영토를 확보하여 교황령의 수도로 사용했다. 바티칸시국은 1929년 라테란 조약에 따라 당시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으로부터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 바티칸시국에게 주어진 치외법권은 로마 시내에 있는 10여 개에 이르는 바티칸시국 소유의 건물들과 알바 힐스에 있는 교황의 여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에도 적용된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당과 더불어 로마의 주요 4대 성전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바티칸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다. 대성당의 돔은 로마식 지평선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장 거대한 기독교 성당에 속하며[10], 바티칸 영토를 포함하여 2.3헥타르(5.7에이커)의 넓이를 가졌다. 그리고 최대 6만 명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성당 내부에는 500개에 달하는 기둥과 400개가 넘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고, 따로 분리된 44개의 제대와 10개의 돔이 있으며, 1300개에 달하는 모자이크 그림들이 벽면에 장식되어 있다.[11] 기독교 세계의 성지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성 베드로가 묻힌 곳이기도 하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중에 로마의 첫 번째 주교, 즉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고 한다. 비록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의 로마 체류나 순교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의 무덤이 발다키노와 제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베드로를 시발점으로 많은 교황이 이곳에 같이 매장되었다. 낡은 콘스탄티노 대성당을 헐고 새로 지은 지금의 대성당은 1506년 4월 18일에 건축을 시작하여 1626년에 끝마쳤다.
비록 성 베드로 대성당이 교황의 공식 주교좌이거나 대성당 가운데 제일의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 위치가 바티칸 시국 벽 안에 있고 교황의 주거지와 인접해 있을뿐더러, 교황이 집전하는 대부분 의식이 열리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교황의 가장 중요한 성당으로 여겨진다.

❑ 바티칸 시국-광장전경 및 내부



- 바티칸 시국 광장 전경(1), 내부전경(2/3), 교황상징 문양(4).

4. 피렌체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 떨어져 있다. 이 시는 공화국, 토스카나 공작령의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 등 다양한 지위를 누리며 긴 역사를 이어왔다. 14~16세기에는 예술을 비롯하여 상업·금융·학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위치를 점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브루넬레스키, 단테,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및 메디치 가문을 들 수 있다. 관광업이 시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전통적인 수공예품인 유리제품과 도자기, 귀금속제품, 가죽제품, 예술 복제품, 연철 및 짚 제품, 고급 의류와 구두 등의 제조업도 이루어진다.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 떨어져 있는 이 시는 공화국, 토스카나 공작령의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1865~71) 등 다양한 지위를 누리며 긴 역사를 이어왔다. BC 1세기경 로마의 군사 식민지에서 비롯된 곳으로 14~16세기에는 예술을 비롯하여 상업·금융·학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위치를 점했다. 이곳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했던 천재들을 통해 이 시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브루넬레스키, 단테,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및 메디치 가문을 들 수 있다.

아르노 강 양쪽 기슭에 세워져 있어 종종 범람을 겪는 이 시는 온대성 기후를 보이나 계절에 따라 몹시 덥거나 추운 현상이 잠깐씩 나타난다.

관광업이 시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전통적인 수공예품인 유리제품과 도자기, 귀금속제품, 가죽제품, 예술 복제품, 연철 및 짚 제품, 고급 의류와 구두 등의 제조업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시 자체가 제조업의 중심지는 아니며, 대부분의 공업활동은 교외에서 이루어진다. 도심은 지금도 로마 시대 자치도시의 구조에 따라 세워져 있다.

옛 상업 중심지에는 현대 시민생활의 핵심부인 레푸블리카 광장이 들어섰다. 이제는 공예품이 시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지금도 전통적인 장터가 남아 기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중 하나인 폰테 베키오('오래된 다리'라는 뜻)는 금·은 세공인, 보석상들이 모여 있는 상업 요지이다. 이 시의 역사적인 종교 중심지는 바티스테로산조반니 세례당(1000경)과 고딕 양식의 두오모 대성당이 있는 곳이다.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추정되는 이 세례당에는 성서의 장면들이 조각되어 있는 거대한 청동문이 있다. 프레스코로 장식된 교회들 가운데에는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의 훌륭한 본보기로 꼽힐 만한 것들이 많다. 조르조 바사리가 설계한 우피치 미술관은 이 시의 미술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마니에리스모 양식으로 지어진 우아한 날개 부분에는 프랑스·네덜란드·플랑드르·독일의 유명한 대작들과 더불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에 특히 르네상스 시대 그림의 수집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팔라초피티와 호화롭게 조경된 그곳의 보볼리 정원은 이 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궁전들과 정원들

의 본보기이다. 시 안팎으로 피렌체대학교를 비롯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해외주재 대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와 그 주변 지역에는 버스와 노면 전차가 운행된다. 간선도로인 아우토스트라다델솔레가 시의 서쪽과 남쪽을 통과한다.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를 잇는 철로가 통과하며, 동쪽과 서쪽의 도시들과도 철도망을 통해 연결된다.

❑ 피렌체



- 피렌체 두오모성당(1), 미켈란제로 다비드상(2), 단테생가(3), 피렌체 전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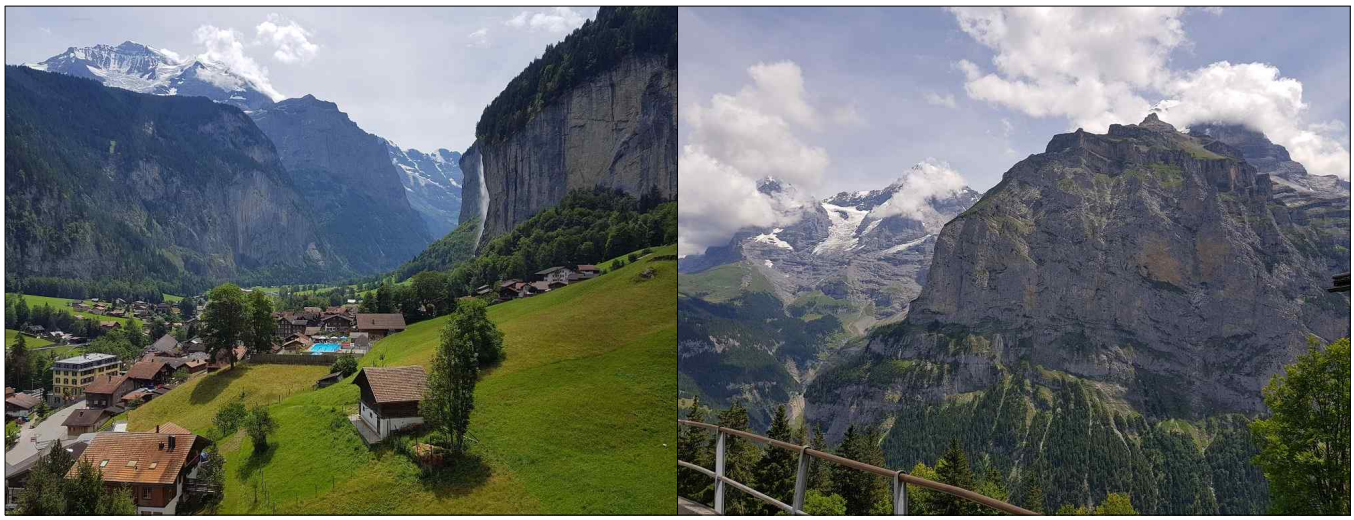
5. 라우터브룬넨-뮈렌

해발 795m의 라우터브룬넨은 '울려 퍼지는 샘'이라는 뜻을 지닌 전원 마을로, 흔히 '폭포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우터브룬넨에만 크고 작은 폭포들이 7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라우터브룬넨 역에서도 보이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300m 높이의 슈타우프바흐 폭포와 암벽 속에서 떨어지는 이색적인 트뤼멜바흐 폭포는 라우터브룬넨에서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이다.

뮈렌에서 바라본 맞은편 융프라우는 라우터브루넨 계곡에 우뚝 솟아 있으며, 해양도시인 인터라켄에서 남남동쪽으로 18㎞ 떨어져 있다. 베른알프스 산맥에 속하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으로 베른 주와 발레 주를 나누며, 그중 다른 두 봉우리들인 핀스터아르호른과 알레치호른은 융프라우의 높이를 능가한다.

1811년 동쪽, 즉 발레 쪽에서 두 스위스인 형제 루돌프 마이어와 히에로니무스 마이어가 처음으로 등반했고, 1865년에 비로소 어려운 서쪽, 즉 인터라켄 쪽에서 두 영국인이 처음으로 산에 올랐다. 1927년에 전문등산가 2명이 남쪽에서 등반했다. 유럽의 가장 높은 철도 중 하나인 융프라우 철도는 아이거와 묀히 산허리를 지나 묀히융프라우 사이의 고갯길인 융프라우요크까지 길이가 약 7㎞ 되는 터널을 통과한다.

❑ 스위스 뮈렌



6. 베르사이유 궁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이 도시는 17세기에 루이 14세가 건립한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 궁전의 정원들은 프랑스 유형문화재이자 유럽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사적지의 하나가 되었다. 1837년에는 궁전을 복원하여 박물관으로 개조했다.

1870년 파리를 침공한 독일군이 베르사유를 그들의 본부로 사용했다. 프랑스-독일의 평화조약 체결 후 한동안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의회의 의사당 건물로 이용되었으며, 1875년 제3공화국의 헌법이 이곳에서 반포되었다. 1919년 연합국과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체결 장소가 된 궁전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에 다시 복구되고 현대화되었다.
베르사유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이자 파리의 교외주거지이다. 증류주 제조업, 피혁업, 원예업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파리 시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이 도시는 17세기에 루이 14세가 건립한 이래 100년 이상이나 프랑스 왕들이 거처하면서 국사를 처리한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프랑스 혁명 최초의 중심 무대이기도 했던 이 궁전의 정원들은 앙드레 르 노트르의 걸작품으로 프랑스 유형문화재의 일부이자 유럽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사적지의 하나가 되었다.
이 웅장한 궁전은 원래 연회장으로 건립되었지만 국사를 처리하는 정청으로서의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왕실에 딸린 인원이 약 2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약 1,000명의 조신이 4,0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이 궁전 안에서 살았다. 약 1만 4,000명의 병사와 종복들은 별채 건물들과 마을에 배치되었는데, 1671년에 건립된 마을은 1715년 루이 14세가 죽었을 때 그 인구가 3만 명이나 되었다.
루이 15세는 재위기간 동안 선왕이 시작한 건축사업을 계속했으며, 베르사유 궁전은 사치스런 왕실생활의 상징물이 되었다. 1837년에 궁전을 복원한 루이 필리프는 '프랑스의 모든 영광'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으로서 개조했다. 1870년에 파리를 침공한 독일군이 베르사유를 그들의 본부로 사용했으며, 1871년에는 독일 황제가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졌다.
프랑스-독일의 평화조약 체결 후 8년 동안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의회의 의사당 건물로 이용되었으며, 1875년 제3공화국의 헌법이 이곳에서 반포되었다. 또한 제3공화정과 제4공화정의 대통령들이 이곳 베르사유에서 선출되었다. 연합국과 독일 사이의 베르사유 조약(1919) 체결 장소가 된 궁전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에 다시 복구되고 현대화되었다.
베르사유 시는 현재 지방행정의 중심지이며, 파리 시의 교외주거지이다. 관광명소가 된 궁전은 외국 원수들이 방문했을 때 묵는 곳으로 이용된다.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인 사토리에 생루이 대성당이 있고 북쪽의 신시가지인 르셰스네에 노트르담 교회가 있다.
베르사유는 육군 병원과 육군 공병·포병 학교가 있는 중요한 군사도시이자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으로는 증류주 제조업, 피혁업, 시장용 원예업 등이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정원에 부속된 원예학교(1874)가 있다.

❑ 베르사이유 궁전



7. 에펠탑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세계 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구조물로, 세계 박람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도 박람회 위치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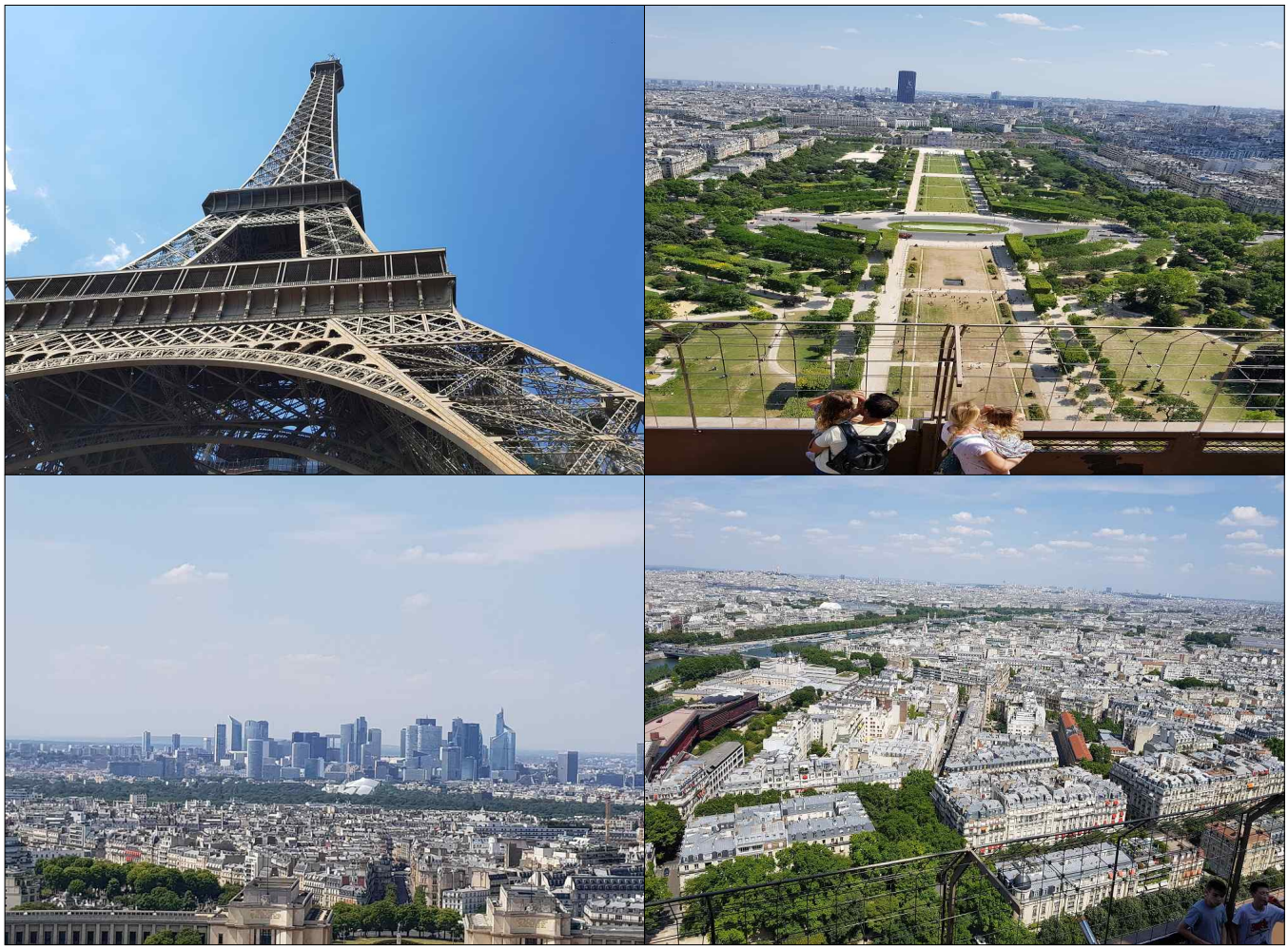
귀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의 설계로 세워진 에펠탑은 원래는 박람회가 끝나면 철거될 계획이었다고 한다. 파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상징이지만 당시 파리 시민들은 예술의 도시 파리와 어울리지 않는 '추악한 철덩어리'라 하여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의 예술과 문학계 명사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1909년엔 철거될 뻔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최신 송신 안테나를 세우기에 이상적이

라는 이유로 위기를 모면했기에 지금까지 남아 있다.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건물 전체가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강한 바람에도 13cm 이상 흔들리지 않고, 기타 위험으로부터 탑을 잘 고정시켜 준다. 또한 철골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15cm가 더 길어진다고 한다.

탑의 높이는 꼭대기의 텔레비전 안테나를 포함하여 320m이고, 3층까지는 총 1,652개의 계단이 있고, 2천 5백만 개의 못이 있다. 총 무게는 10,000톤이고 4년마다 도색 작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페인트의 양만해도 엄청나다고 한다.

❑ 에펠탑



Ⅳ 연수결과

1.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의 전시장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해왔다. BC 9세기에 에트루리아 문명이 꽃피었으나, 로마인들을 BC 3~4세기에 그들을 몰아내고 로마 공화정을 세웠다. AD 4~5세기에는 이민족이 침략하여 서로마 제국을 붕괴시켰다. 기원 훨씬 이전부터 문명이 발달하였을 뿐만아니라 로마제국 시절 로마는 점령국의 문화를 말살시키 보다는 점령국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었으며 그 들의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로마시대는 곧 세계 문화 부흥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문화유산을 생산하고 보유하였다.

○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제국도 결국은 흥망의 길을 따라 몰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로마제국 시절을 거쳐 중세 르네상스까지의 모든 문화·예술, 유적들은 지금도 언제든지 볼 수 가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가 남겨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보존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이탈리아의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 바닥이나 도로에 현대적 공법의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곳을 보기가 드물다.

이유는 한가지, 문화유산의 유지 보수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작은 돌 조각 하나까지 그대로 원형을 고수하과 지키려는 그들의 문화재 보존 정책에서 답을 찾아 볼 수 있다.

도처에 보이는 건물들은 오래된 것은 로마나 르네상스 시절부터 보존되어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대물림하며 살고 있으면서 유지보수를 꾸준히 하면서 문화유산을 지켜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선대 가문으로부터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물려받은 후손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그 후손의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키고 보존해야하는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모든 것들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 또한, 거리에서 공사 도로공사를 하는 곳을 볼 수 있었는데 한 쪽 옆에 공사를 위해 걷어 낸 보도블럭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도로나 건물들은 앞서 말했듯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원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 걷어낸 보도블럭을 공사 후 다시 그 자리에 배치하여 공사 전·후를 비교하여도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사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리고, 문화유적의 관리측면에서도 속도보다는 원형복원 및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린다고 한다.

일례로 피렌체 두오모성당의 경우 완공이후 지금까지 수백년간 유지보수 공사를 해오고 있다. 구간별로 구분하여 한 구간이 끝나면 다음 구간을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한 싸이클이 돌면 또 처음 구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유지보수 인력 또한 문화재에 학식이 깊은 전문가와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이라서 옥외 광고판을 통한 광고 수입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고 있기도 한다.

2. 실생활속 문화유산들 - 베르사이유 궁전과 에펠탑

○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이 도시는 17세기에 루이 14세가 건립한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 궁전의 정원들은 프랑스 유형문화재이자 유럽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사적지의 하나가 되었다. 1837년에는 궁전을 복원하여 박물관으로 개조했다.

1870년 파리를 침공한 독일군이 베르사유를 그들의 본부로 사용했다. 프랑스-독일의 평화조약 체결 후 한동안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의회의 의사당 건물로 이용되었으며, 1875년 제3공화국의 헌법이 이곳에서 반포되었다. 1919년 연합국과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체결 장소가 된 궁

전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에 다시 복구되고 현대화되었다.
베르사유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이자 파리의 교외주거지이다. 증류주 제조업, 피혁업, 원예업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파리 시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이 도시는 17세기에 루이 14세가 건립한 이래 100년 이상이나 프랑스 왕들이 거처하면서 국사를 처리한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프랑스 혁명 최초의 중심 무대이기도 했던 이 궁전의 정원들은 앙드레 르 노트르의 걸작품으로 프랑스 유형문화재의 일부이자 유럽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사적지의 하나가 되었다.

○ 베르사이유 궁전을 관람하기 위해선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을 서야 한다. 오전 9시도 안되어 궁전 앞 광장에 도착했지만, 그 곳은 관람을 위해 기다리는 관광객들의 긴 행렬로 가득차 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파를 수용하기 위해 광장은 구불구불한 긴 행렬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베르사유 궁전을 보려는 사람도 많지만 관람 수입도 어마어마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정작 관리주체인 프랑스 당국은 관광객의 입장을 반기지 않는다고 한다.
관광을 통한 경제적 수입보다 현지인들의 개별적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도 풍족하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하다. 일부러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을 위해 도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건물이나 도로의 보수를 위해선 행정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 원형에 어긋나 보수나 공사는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하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프랑스 시내는 거주민들만으로도 교통정체나 주차난이 심한 상황인데 여기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도로사정은 날이 갈수록 교통난과 주차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들은 관광수입보다 자신들의 거주환경을 위해서라도 관광객의 유입을 꺼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로 들어 가기 위해서 진입을 위한 세금을 별도로 내야하며 주정차 위반시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버스기사들도 관광객 수송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정도다.

V 연수후기

○ 이탈리아가 세계적인 문화 유산의 도시로 성장하는데는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치 가문은 약업으로 재산을 모은 뒤 당시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금융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가문으로 단순히 금융업에만 매진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세워 뛰어난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로인해 메디치가문의 후원을 받아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갈리레이 등 탁원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또한,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안나 마리아 루이사 데 메디치는 가문의 쇠퇴기를 맞이하여 전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당대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였고 이를 피렌체 외부로는 절대 반출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 만을 달아 전부 기증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세계적인 명작과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만큼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선견지명과 자긍심 덕분에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나라로 인정 받게 된 것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현대적인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 낡고 오래된 문화유산에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어 세계인들에게 문화유산을 지키는 중요성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정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개발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다 문화재가 출토되면 개발 중단은 물론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면한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 몰래 폐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중요한 문화유산이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위 사례를 보면서 문화재 출토와 보존에 대한 시각은 바뀌어야 할 것이며 훌륭한 문화유산 하나가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사려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우덕이축제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시간에 쫓겨 빨리 빨리만 외칠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원형을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유산 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대한민국민과 나아가 세계인들과도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 아울러, 선진국의 문화관광산업 시찰을 위해 관광버스를 타고 많은 시간을 이동하면서 배운 점도 적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형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버스기사들의 과로와 그로인한 졸음운전을 막기위한 법안까지 준비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서유럽은 버스기사가 당일 버스 운행을 마치면 그 시간으로부터 11시간 이내에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버스차량에 운행기록기를 설치하여 과속이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는지를 EU 국가의 어는 경찰이든 차를 세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속이나 초과운행을 한 경우 해당 국가로 이를 통보하여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선 면허까지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버스운전 기사들의 준법운행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 만큼 사고예방과 안타까운 사망자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할 제도로 보인다.

○ 연수대상 국가들이 하루 아침에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 것이 아니다.

또한, 아무 노력없이 이뤄진것도 아니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며 지금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그들의 자긍심과 인식이 지금의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관광객을 반기는 것도 아니다. 관광객은 자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당국이나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며, 스스로 우리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의식변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